

2017년 7월 2일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주간메시지

주일 1부 예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엡 5:1-14)

▶ 에베소서는 성도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이라 하시는 것. 언약 잡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엡 5:1-4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엡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간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이런 것만 계속 하는 사단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음행을 하거나 더럽다는 단어로 표현을 해놓았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면 그건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뜻이 된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기 때문이다!

엡 5:8-11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엡 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 우리가 일어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일어서게 되어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신 것이다. 일어서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내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살리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다 일으켜 세우고 싶다.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 네가 은밀히, 개인적으로 누리면 분명히 답을 얻게 될 것이다.

1. 그리스도를 누리라.

▶ 내가 살아보고 내 인생도 내 환경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안에 있는 것이다. 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세상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원죄이다. 이 때 일어난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왔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많아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인생에 답으로

받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 뿐이다. 내 마음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다니엘의 언약은 절대적이었다. 나는 죽어도 우상숭배 안한다! 이것이 그를 살렸다. 이게 약속의 피이고 그에게 그리스도였다. 이 언약으로 승리하였다. 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 앞에 두고도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큰 병이다. 이것을 고쳐 그리스도가 나에게 100%가 되어야 한다. 충분히 하고 완전하고도 남는 것이다. 뭔가에 대해 고민 있고 안 풀리면 그리스도에 대해 새로 시작하라.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 영적인 비밀의 궤도에 들어서고 응답이 지속되어진다. 우리는 응답을 가다가 한번씩 받는게 아니다. 가끔의 콩나트 받지 않잖나? 응답 하나 받아보고 죽어난다. 그건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고백하는데 응답이 지속적으로 향해 나가는 것

▶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난 것은 일어났을지라도 일어난 것이 아니다. 속아서 착각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순간적으로 흔들 흔들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누워 있어도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다. 우리가 꼭 일어서야 일어난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일어난 것이다. 저절로 살아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그 정도로 뛰어넘고 그 정도로 답 나는 것이다.

▶ “그리스도”이 것이 답이면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누리야 한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답을 기도하고 누리고 뿌리 내려야 한다. 노래를 해도 이 답을 노래해야 한다. 24시간 3오늘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더 세밀히 누리기 위함이다. 21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정도로 세밀하고 전체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62가지는 정말 크게보라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62가지 언약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버리고 3오늘 잡고 있으면 우상숭배이다. 더 세밀하게 오늘도 그리스도! 너무 당연한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오라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잘 생각해야 한다. 물론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된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혹 내가 천명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천명으로 주신 일을 하시는 것이다. 천명이 내게 발견되어진다면 더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하실 일을 다 하실 것이다. 알고 보니 그게 내 천명이 되는 것이다.

2. 영적으로 일어서면 된다.

▶ 육신적 노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

에 하나님은 영적인 답을 주었다. 세상의 문제는 원죄라는 것에서 나왔다.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이 비밀 안으로 안 들어가면 죽을 힘을 다 해도 문제가 떠나가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육신적 노력으로 되는데 아니다. 간단하게 쉽게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된다. 대단한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그 모든 훈련에서 들었던 것이 우리 인생 중에 나타날 것이다. 내 기도제목은 내 기도일뿐이지 하나님의 소원과 대부분 따로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때가 되면 내가 원했던 기도제목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영적으로 가 능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아는 영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시하면 안 된다. 속는 것이다. 반드시 언약 기도 늘~ 써야 한다. 잘 안 되어진다고 매일 그리스도 고백해야 한다. 어느 날 이란 게 온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있는 원래부터 있는 원칙이다.

▶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이 눈이 곧 권세이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사단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이 눈이 내게 하나님이 나타낸 눈이다. 그리고 결국 정복인 것이다. 이 눈이 나의 그리스도를 결정한다. 오늘도 이 은혜 있기 바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일어서라는 말은 내가 직접 일어서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일으켜준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안 된다. 마음이 급해서 자기가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반드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속에서는 답답해도 좀 참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해버리면 반드시 부작용 일어난다. 그러므로 끝까지 답은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다.

▶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진짜 회개했다. 예전의 죄를 생각 하면서 하염없이 울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하며 막 울었다. 아주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얼마 안가 이런 분위기가 사라져버렸다. 복음을 놓쳐서 그렇다. 유월절 두 번 연달아 지키고 난리가 났었다. 이게 대를 이어 계속 내려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언약이 사라졌다. 이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는 개인 고백이 중요하다. 그 중요한 시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시작하면 된다. 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어있다. 영적으로 일어서면 진짜 시작인 것이다. 이것을 아는 모든 성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어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인생도 일어서게 되어있다.

▶ 너희는 죽은 자에게서 일어서라. 그 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닌가? 길이 막혔으면 내게 오라는 뜻이다. 세상은 전부 거짓말이다. 너는 절대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너는 이 모든 거 주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는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다.

2017년 7월 2일 임마누엘 남가주교회 주간메시지

일 2부 예배 (임마누엘 1부)